

5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다 했으면 6일차 달라고 메일주소와 함께 문자주세요~!

[1 ~ 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삼단 논증은 두 개의 전제에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연역 논증이다. 이때 두 전제로부터 그 결론만이 반드시 도출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규칙에 따라 추론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 추론 과정에서 자주 오류를 범한다. 인지 실험 연구자들은 삼단 논증의 추론 과정에서 일어나는 오류 현상에 일정한 유형이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오류의 원인을 분석했다.

인지적 측면에서 오류의 원인을 분석한 최초의 주요 이론은 ‘분위기 이론’이다. 분위기 이론은 <모든 A는 B이다. 어떤 B는 C이다.>에서 <어떤 A는 C이다.>가 반드시 도출되는 것이 아님에도,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전제의 분위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전제가 긍정인가 부정인가, 전칭(‘모든’)인가 특칭(‘어떤’)인가에 따라 일정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결론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분위기 이론은 사람들이 두 전제가 모두 긍정문이면 긍정 결론을, 하나라도 부정문이면 부정 결론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또한 두 전제가 모두 전칭이면 전칭 결론을, 하나라도 특칭이면 특칭 결론을 선호한다고 본다. 하지만 똑같은 결론이 도출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삼단 논증에 대한 사람들의 상이한 반응을 이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모든 A는 B이다. 어떤 B는 C이다. 따라서 어떤 A는 C이다.>라는 부당한 논증과 <어떤 A는 B이다. 모든 B는 C이다. 따라서 어떤 A는 C이다.>라는 타당한 논증이 주어졌을 때, 분위기 이론은 피험자들이 두 논증의 결론을 모두 비슷한 비율로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선택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왜냐하면 전제 하나가 특칭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험자들은 타당한 논증인 후자를 부당한 논증인 전자보다 더 높은 비율로 ‘반드시 도출된다’를 선택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래서 이 이론으로는 구체적으로 추론의 어떤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사람들이 삼단 논증에서 오류를 범하는 이유를 그 추론 과정에 주목하여 분석한 것으로는 ‘심적 모형 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사람들이 삼단 논증의 전제를 만족시키는 심적 모형을 만들고 결론이 만족스러운지 그 모형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고 설명한다. 가령 <모든 사각형은 음영이 있는 도형이다. 어떤 음영이 있는 도형은 뚜렷한 윤곽이 있다.>에서 <어떤 사각형은 뚜렷한 윤곽이 있다.>가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전제로부터 오른쪽 그림과 같은 심적 모형을 상상한 것이라고 보았다. 즉 피험자들은 삼단 논증의 전제를 만족시키는 심적 모형을 만들고 결론이 만족스러운지 그 모형을 살펴보고 결론이 만족스럽다면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증의 전제를 만족시키는 다른 심적 모형을 마음속에서 표상한다면 <어떤 사각형은 뚜렷한 윤곽이 있다.>가 이 전제로부터 반드시 도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심적 모형 이론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반드시 도출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전제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모형을 모두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사람들이 이러한 모형 구성에 실패하기 때문에 삼단 논증 추론에서 오류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삼단 논증 추론에서 오류가 생기는 원인을 명제의 잘못된 ‘환위’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이론도 있다. 환위란 주어진 명제에서 주어와 술어의 위치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모든 A는 B이다.>를 <모든 B는 A이다.>로, <어떤 A는 B

가 아니다.>를 <어떤 B는 A가 아니다.>로 환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환위가 비논리적 결과를 야기한다. 즉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문장이 아니므로 논리적 문제를 일으킨다.

사람들은 결론이 담고 있는 내용에 영향을 받아 오류를 범할 때도 있다. 피험자들은 두 전제로부터 그 결론이 반드시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체계와 정합적이거나 적어도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 결론을 받아들이는 성향, 이른바 ‘믿음 편향’이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에번스는 사람들이 일단 결론의 믿을 만함을 평가하고, 믿을 만하면 논리적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결론을 받아들인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 믿을 만하지 못하면 그제야 논리적 규칙을 적용하여 삼단 논증을 점검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폴라드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 전제들이 논리적으로 더 복잡하다고 해서 그에 따라 믿음 편향 효과가 더 증가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인지 오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일부 인지 심리학자들은 여러 실용적 목적에서 효율적인 수준이라고 만족한다면 사람들이 합리성이나 논리적 정합성을 기꺼이 버리는 사고를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인지적 특성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생각은 전통적 관점과 달리 인간이 논리적 사고 중심의 인지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1.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지 오류 현상에 대한 상반된 이론을 설명하며 절충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인지 오류 이론의 핵심 개념을 정의하며 인지 능력의 발달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 ③ 하나로 통합되어 있던 인지 오류 이론이 다양하게 분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인지 오류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 이론들을 소개하며 인간의 인지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인간의 논리적 사고력에 초점을 맞추어 인지 오류 이론에 영향을 미친 다른 이론들을 소개하고 있다.

2. ㉠을 뒷받침하는 심적 모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국어 영역

3. ㉠와 ㉡를 통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믿음 편향은 논리적 규칙 적용 이전에 일어난다.
- ② 믿음 편향이 강할수록 개인의 합리성은 증가한다.
- ③ 믿음 편향은 논리적 규칙 적용에 능숙할수록 자주 일어난다.
- ④ 전제들이 논리적으로 복잡할수록 믿음 편향 효과가 발휘된다.
- ⑤ 전제들이 논리적으로 복잡할수록 논리적 규칙 적용이 수행되기 어렵다.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어떤 인류학자는 생물학자가 아니다.
모든 생물학자들은 바둑 기사이다.
따라서 어떤 인류학자는 바둑 기사가 아니다.

- ① 전제들을 <어떤 생물학자는 인류학자가 아니다.>와 <모든 바둑 기사는 생물학자이다.>로 환위할 경우 환위하기 전과 뜻이 달라지게 되겠군.
- ② 심적 모형 이론은, 전제로부터 가능한 모형을 모두 구성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결론이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잘못 답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겠군.
- ③ 분위기 이론은, 전제에서 특칭과 부정이 사용되었으므로 이것에 영향을 받아 결론이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답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겠군.
- ④ 에번스는, 인류학자 중 적어도 한 명은 바둑 기사일 리 없다는 믿음 편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론이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답할 것이라고 설명하겠군.
- ⑤ 분위기 이론은, 첫 번째 전제의 특칭을 전칭으로, 두 번째 전제의 전칭을 특칭으로 바꾼다면 결론이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보기>의 논증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겠군.

[5~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전 소설에 널리 이용되어 온 ‘기이성(奇異性)’은 새롭고 낯선 것에서 느껴지는 성질로서, 당대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왔다. 기이성은 다양한 요소를 통해 형성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현실성이다. 비현실성은 현실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초경험적이고 환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이성을 형성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다. 또한 인물의 극단적인 성격이나 사건의 극적인 전개도 기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고전 소설에서는 아름다움, 추함, 선함, 악함, 효심, 충성심 등과 같은 인물의 성격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헤어짐에서 만남으로, 가난에서 부귀로, 위험에서 평온으로 등과 같이 사건의 전개가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흔히 나타난다. 이외에 다른 나라를 배경으로 삼음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이국정취 등도 기이성 형성의 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작품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이성을 형성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이성도 소설의 역사적인 발전 단계에 따라 구현되는 양상이 달라지는데, 비현실성이 이러한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아직도 설화의 흔적이 남아 있던 17세기의

소설에서는 비현실성이 많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불교계 국문 소설과 전기 소설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현실의 논리 같은 것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으며 초현실적 존재가 현실계나 환상계에서 활약하는 것을 극대화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전기 소설의 하나인 「금령전」에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난다.

하지만 18세기에 이르면, 합리적 사고와 사회의식이 성장하면서 초기 소설이 가지고 있던 비현실성은 점차 희석되고 현실성의 비중이 높아진다. 그리고 비현실성과 현실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이원적인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다. 경험 세계인 현실계와 초경험 세계인 환상계가 개별적인 독립성과 함께 상호 유기성을 갖는 공간으로 설정된 것이다. 이를 통해 현실계에서 일어나는 비현실성의 근거를 환상계에 귀속시킴으로써 독자들이 큰 저항 없이 비현실성을 수용할 수 있었다. 이 시기의 적강형 영웅 소설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민중적인 가치를 담아 발전해 간 판소리계 소설은 현실적인 요소를 확대하였다. 하지만 「흥부전」, 「심청전」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인물의 극단적인 성격과 사건의 극적인 전개 등은 여전히 기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 환상계가 현실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계질서를 갖추게 됨으로써, 환상계의 질서에 귀속되는 비현실성이 사건의 극적인 전개에 중요한 장치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나)

차설. 해룡이 변씨 집을 떠나 남쪽으로 가는데 한 곳에 다다르니 큰 산이 앞길을 막았거늘, 갈 길을 못 찾아 주저할 즈음에 금령(金鈴)*이 굴러 길을 인도하였다. 금령을 따라 여러 고개를 넘어가니 절벽 사이에 푸른 잔디와 암석이 바라보이며, 해룡이 돌 위에 앉아 잠깐 쉬고 있었는데, ㉡ 문득 벽력같은 소리가 진동하며 금털 돌친 짐승이 주홍 같은 입을 벌리고 달려들어 해룡을 물려고 하였다. 해룡이 급히 피하려 하였는데 금령이 내달아 막으니, 그것이 몸을 흔들며 변하여 아홉 머리 가진 것이 되어 금령을 집어삼키고 골짜기로 들어갔다.

해룡이 낙담하며 말하기를,

“분명코 금령이 죽었도다.”

하고, 탄식하여 어찌할 줄 몰랐다.

갑자기 한바탕 미친 듯한 바람이 일어나며 구름 속에서

크게 불러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 금령을 구하지 아니하고 저다지 방황하느냐?”

하고, 간 데 없었다.

해룡이 생각하되, ‘하늘이 가르치시나 몸에 촌철(寸鐵)이 없으니 어찌 대적하리오? 그러나 금령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찌 살아났으리오?’ 하고 옷차림을 단단히 하고 뛰어 들어가니, 지척을 분별할 수 없었다. 몇 리를 들어가되 종적이 없거늘, 죽을힘을 다하여 기어 들어가니 ㉢ 홀연 천지가 명랑하고 일월이 조요하였다. 두루 살펴보니 돌 비석에 금자로 새겼으니, ‘남전산 봉래동’이라 하였고, 구름 같은 석교에 만장폭포가 거룩하였다. 거기를 지나 들어가서 문을 활짝 여니 동중에 주궁 패궐*과 내성 외곽이 은은히 뵈거늘, 자세히 본즉 문 위에 금자로 크게, ‘금선수도부’라 써어 있었다.

(중략)

해룡이 뛰어 올라가 보니, 그 짐승이 상 위에 누워 앉다가

[A]

국어 영역

사람을 보고 일어나려 하다가 도로 자빠지며 일신을 뒤틀며 움직이지 못하고 입으로 피를 무수히 토하였다. 해룡이 하수하고자* 하나 손에 촌철이 없었는데, 홀연 미인 한 사람이 칠보 홍균을 입고 가볍게 걸어서 벽에 걸린 보검을 갖다가 해룡에게 주었다. 해룡이 급히 칼을 들고 달려들어 요괴의 가슴을 무수히 찌르니, 그 짐승이 그제야 죽어 늘어졌다. 자세히 보니 금 터럭 돋친 암돼지이거늘, 가슴을 헤치고 보니 금령이 굴러 나왔다. 해룡이 크게 반기며 소리 질러 말하기를,

“너희 수십인 계집이 다 요괴로 변하여 사람을 속임이 아니냐?”

모든 여자들이 일시에 끓어 아뢰기를,

“우리들은 요괴가 아니요. 사람으로서 요괴에게 잡혀 와 옥을 참고 사환하였나이다. 아까 칼 갖다 주던 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천자의 외동딸 금선 공주입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공주가 슬픈 기색으로 나아와 사례하기를,

“나는 과연 공주러니, 6년 전에 모후 낭낭을 뵈시고 후원에서 달구경을 하다가 이 요괴에게 잡혀 와 시녀들이 밤낮으로 지키는 까닭으로 지금까지 옥을 참고 살았었습니다. 천행으로 그대의 구함을 입어 고국에 돌아가 부모를 만나 보고 죽게 되니 다시 한이 없을까 합니다.”

하며 소매로 닦을 가리고 통곡하였다.

— 작자 미상, 「금령전」 —

* 금령 : 금방울.

* 주궁패궐 : 진주나 조개 따위의 보석으로 호화찬란하게 꾸민 궁궐.

* 하수하고자 : 손을 대어 죽이고자.

(다)

하루는 옥황상제께서 사해용왕에게 말씀을 전하시기를, 「심 소저 혼약할 기한이 가까우니, 인당수로 돌려보내어 [B] 좋은 때를 잃지 말게 하라.」

분부가 지엄하시니 사해용왕이 명을 듣고 심 소저를 보내실 제, 큰 꽃송이에 넣고 두 시녀를 곁에서 모시게 하여 아침저녁 먹을 것과 비단 보배를 많이 넣고 옥 화분에 고이 담아 인당수로 보내었다. 이때 사해용왕이 친히 나와 전송하고 각궁 시녀와 여덟 선녀가 여쭙기를,

“소저는 인간 세상에 나아가서 부귀와 영광으로 만만세를 즐기소서.”

소저 대답하기를,

“여러 왕의 덕을 입어 죽을 몸이 다시 살아 세상에 나가오니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녀들과도 정이 깊어 떠나기 섭섭하오나 이승과 저승의 길이 다르기에 이별하고 가기는 하지마는 수궁의 귀하신 몸 내내 평안하옵소서.”

하직하고 돌아서니, 순식간에 꿈같이 인당수에 번듯 떠서 뚜렷이 수면을 영롱케 하니 천신의 조화요 용왕의 신령이었다.

㉔ 바람이 분들 꼬떡하며 비가 온들 떠내려 갈소냐. 오색 무지개가 꽃봉 속에 어리어 등덩실 떠 있을 적에, 남경 갔던 뱃사람들이 억 십만 금 이문을 내어 고국으로 돌아오다가 인당수에 다다라서 배를 매고 제물을 깨끗이 차려 용왕에게 제를 지내면서 비는 말이,

“우리 일행 수십 명 몸에 재액을 막아 주시고 소망을 뜻한 대로 이루어 주셔서 용왕님의 넓으신 덕택을 한 잔 술로 정성을 드리오니, 어여뻐 보셔서 이 제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제를 올린 뒤에 제물을 다시 차려 심 소저의 혼을 불러

슬픈 말로 위로한다.

“출천 효녀 심 소저는 늙으신 아버지 눈 뜨기를 위하여 젊은 나이에 죽기를 마다 않고 바닷속 외로운 혼이 되었으니 어찌 아니 가련하고 불쌍하리오. 우리 뱃사람들은 소저로 말미암아 장사에 이문을 내어 고국으로 돌아가지만 소저의 영혼이야 어느 날에 다시 돌아올까? 가다가 도화동에 들어가서 소저의 아버지 살았는가 여부를 알아보고 가오리다. 한 잔 술로 위로하니 만일 아시거든 영혼은 이를 받으소서.”

제물을 풀고 눈물을 쏟고 나서, 한곳을 바라보니 한 송이 꽃봉이 너른 바다 가운데 등덩실 떠 있으니 뱃사람들이 꺾이히 여겨 저희들끼리 의논하기를,

“아마도 심 소저의 영혼이 꽃이 되어 떴나 보다.”

가까이 가서 보니 과연 심 소저가 빠졌던 곳이어서 마음이 감동하여 꽃을 건져 내어 놓고 보니, 크기가 수레바퀴처럼 생겼고 두세 사람이 넉넉히 앉을 만했다.

(중략)

하루는 천자께서 당나라의 옛일을 본받아 궁녀에게 명하시어 화청지에 목욕하시고 친히 달을 따라 화단을 배회하시는데, 밝은 달은 뜰에 가득하고 산들바람 부는 중에 문득 강선화 봉오리가 흔들리며 가만히 벌어지고 무슨 소리 나는 듯했다. 천자께서 몸을 숨겨 가만히 살펴보니 ㉕ 예쁜 용녀가 얼굴을 반만 들어 꽃봉 밖으로 반만 내다보더니, 사람 자취 있음을 보고 도로 헤치고 들어갔다. 천자께서 보시고 문득 몸과 마음이 황홀하시어 의아한 생각이 들어 아무리 서 있어도 다시는 기척이 없었다. 가까이 가서 꽃봉을 가만히 벌리고 보시니 한 처녀와 두 미인이 있기에 천자 반기며 물으시기를,

“너희가 귀신이나 사람이나?”

미인이 즉시 내려와 땅에 엎드려 여쭙기를,

“소녀는 남해 용궁 시녀이온데 소저를 모시고 세상으로 나왔다가 황제의 모습을 뵈오니 극히 황공하옵니다.”

하니 천자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기를, ‘상제께옵서 좋은 인연을 보내신 것이로구나. 하늘이 내리신 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좋은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 하시고, ‘배필을 정하리라.’ 결심하시어 혼인을 하기로 작정하시고 태사관으로 하여금 날을 잡으라 하니 5월 5일 갑자일이었다. 소저를 황후로 봉하여 승상의 집으로 모신 뒤에 혼인날이 당하매 명하시기를, “이러한 일은 천만고에 없는 일이니 예의범절을 특별히 마련하도록 하라.”

하시니 ㉖ 위엄이 이 세상에서 처음이요 천고에 더욱 없는 일이었다.

— 작자 미상, 「심청전」 —

5.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판소리계 소설에는 민중적인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
- ② 전기 소설에서는 현실 세계의 논리가 사건 전개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 ③ 18세기 적강형 영웅 소설은 이원적인 세계관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 ④ 기이성은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로 고전 소설에서 널리 이용되었다.
- ⑤ 합리적 사고의 성장은 고전 소설에서 비현실적 요소가 약화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국어 영역

6. ‘기이성’을 중심으로 (나)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에서 금령이 굴러서 해룡에게 길을 인도해 주는 장면은 비현실적이라는 점에서 기이한 부분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나)에서 해룡이 요귀를 무찌르고 위험에 처한 이들을 구하는 장면은 비현실적이라는 점에서 기이성이 구현된 장면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다)에서 심 소저와 용궁 시녀가 함께 꽃봉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기이한 일로 받아들여지겠군.
- ④ (다)에서 아버지를 위해 바다에 몸을 던진 심 소저가 수궁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은 지극한 효성을 지닌 인물의 비현실적 경험이라는 점에서 기이성을 느낄 수 있겠군.
- ⑤ (다)에서 심 소저가 중국 천자의 배필이 된 것은 이국정취가 인물의 성격 변화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이국정취를 기이성 형성의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겠군.

7. ㉠을 참고하여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뱃사람들이 심 소저의 혼을 불러 위로하는 장면은 환상계의 존재와 현실계의 존재가 서로 교감하는 계기를 드러낸 것이다.
- ② 천자가 심 소저를 상제가 맺어 준 인연이라고 말하는 장면은 현실계의 질서 속에 환상계의 질서가 귀속되어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 ③ 심 소저가 여덟 선녀와 이별하며 이승과 저승의 길이 다르다고 말하는 장면은 환상계와 현실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없는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 ④ 수궁에 머물던 심 소저가 사해용왕의 도움으로 순식간에 인당수에 번듯 떠오르는 장면은 환상계와 현실계가 서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는 세계임을 나타낸 것이다.
- ⑤ 환상계에 머물던 심 소저가 옥황상제의 명에 따라 현실계에서 천자와 극적으로 인연을 맺게 되는 장면은 환상계의 질서가 현실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8.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인물이 개인적 욕망을 실현하게 하고, [B]는 인물이 집단적 요구에 저항하게 한다.
- ② [A]는 인물이 환상계로 가도록 이끌고, [B]는 인물이 현실계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 ③ [A]는 인물에게 초인적인 능력을 부여해 주고, [B]는 인물이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④ [A]는 인물이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도록 하고, [B]는 인물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도전할 근거를 제공한다.
- ⑤ [A]는 인물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B]는 인물이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9. <보기>에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선생님 :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는 납치된 공주와 공주를 구출한 남주인공의 결연담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된 신이담(神異譚)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를 사건 순서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지하국에 사는 요귀가 공주들을 납치하자 무사와 부하들이 공주들을 구하기 위해 뜻을 모음.
- (2) 무사의 꿈에 나타난 산신령의 도움으로 무사가 바구니를 타고 요귀가 있는 지하국에 진입함.
- (3) 무사가 요귀의 거처에 들어가고, 공주들이 직접 요귀의 약점인 비늘을 떼어내어 죽이는 데 성공함.
- (4) 무사가 공주들은 지상으로 올려 보내지만 부하들의 배신으로 무사는 지하 세계에 남게 됨.
- (5) 무사는 산신령의 도움을 받아 다시 지상으로 나오게 되고, 무사는 공주 중 한 명과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됨.

이 설화는 우리의 고전 소설에서 다양한 변이 양상을 보여 주는데, ‘금령전’도 이것을 잘 보여 주는 작품입니다. (나)와 이 설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생 : (나)에서는_____

- ① 남주인공이 찾아간 요귀의 거처에 공주가 있다는 설정은 유지되었습니다.
- ② 남주인공을 배신하여 새로운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인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 ③ 남주인공이 바구니를 타고 요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 ④ 남주인공이 요귀의 거처로 가도록 이끄는 초현실적 존재가 있다는 점은 유지되었습니다.
- ⑤ 남주인공이 요귀를 찾아가게 된 동기가 공주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유지되었습니다.

1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적대적인 대상이 출현하는 장면을 비유적으로 제시하여 인물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생동감 있게 보여 주고 있다.
- ② ㉡ : 갑자기 변화된 주변 상황과 비석에 새겨진 지명을 통해 새로 진입한 공간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 ③ ㉢ : 외부 영향에도 변함없이 유지되는 대상의 모습을 통해 초월적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 : 인물의 연속되는 행동을 묘사하여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인물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태도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11 ~ 1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를 믿고 어떻게 살어나
서른 먹은 사내가 하나 잠을 못 잔다.

국어 영역

먼— 기적(汽笛) 소리 처마를 스쳐 가고
잠들은 아내와 어린것의 벼개 말에
밤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항시 곤두박질해 온 생활의 노래
지나는 돌팔매에도 이제는 **피곤하다**.
먹고 산다는 것,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는다.
담배를 피워 문다.
쓸쓸한 것이 오장을 찢어 내린다.
노신(魯迅)이여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온—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상해(上海) 호마로(胡馬路) 어느 뒷골목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
등불이 나에게 속삭어린다.
여기 하나의 상심(傷心)한 사람이 있다.
여기 하나의 군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 김광균, 「노신」 —

(나)

춡고 쓸쓸함이 몽당뱃자루 같은 날
운암댐 소릿길에 서서
날개소리 가득히 내리는 **청둥오리떼** 본다
혼자 보기는 아שמ찬히 미안하여
그리운 그리운 이 그리며 본다
우리가 춡다고 버리고 싶은 세상에
내가 침 뱉고 오쭈 내갈긴
그것도 **살얼음** 깔려드는 수면 위에
머언 먼 순은의 눈나라에서나 배웠음직한 **몸짓**이랑
카랑카랑 별빛 속에서 익혔음직한 **목소리**들을 풀어놓는
별, 별, 새, 새, 들, 을, 본다
물속에 살며 물에 젖지 않는
얼음과 더불어 살며 얼지 않는 저 어린 날개들이
건너왔을 **바다와 눈보라**를 생각하며
비상을 위해 뼈 속까지 비워둔 **고행**과
한 점 기름기마저 깃털로 바꾼 새들의 가난을 생각하
는데

[A]

[B]

물가의 진창에도 폭폭 빠지는
아, 나는 얼마나 **무거운** 것이냐
내 관절통은 또 얼마나 호사스러운 것이냐
그리운 이여,
네 가슴에 못 박혀 삭고 싶은 **속된** 내 그리움은 또
얼마나 앓은 것이냐
한 무리의 새떼는 또
초승달에 결승문자 몇 개 그리며 가뭇없는
더 먼 길 떠난다 이 밤사
나는 옷을 더 벗어야겠구나
저 운암의 **겨울새들의 행로**를 보아버린 죄로
이 밤으로 돌아가
더 추워야겠다 나는
한껏 **가난해져야겠다**

[C]

— 복효근, 「새에 대한 반성문」 —

11. (가)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복과 점층을 통해 대상의 역동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의성어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 ③ 유사한 시구의 변주를 통해 시상을 마무리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부정적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여정에 따른 공간의 이동을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가 변화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12. <보기>의 관점에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시인 김광균은 해방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 현실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던 당대의 시단에 회의감을 느끼고 일상과 개인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이때 그는,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의지를 잃지 않고 문학적 성취를 이룬 중국 작가 ‘노신’을 자신과 동일시했다. 시인의 이러한 의식은 그가 쓴 「노신의 문학 입장」이라는 다음의 글에 나타나 있으며, 그의 시 「노신」에 잘 반영되어 있다.

“.....혁명의 혼탁과 동란의 전진에 싸여 작품과 인간이 격앙하고 충혈되었을 때 홀로 정밀한 비가를 노래하던 노신의 심정을 나는 나대로 생각하고 있다......”

- ① ‘사내’가 ‘잠을 못’ 이루는 것은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고뇌하는 시인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② ‘밤눈이 내려 쌓이’는 것은 시인이 일상과 개인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문학적 성취를 이루어 감을 의미하는 것이겠군.
- ③ ‘지나는 돌팔매에도 이제는 피곤하다’는 당대의 현실 속에서 시인이 힘들게 살았음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④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은 힘든 상황에서도 문학적 의지를 잃지 않았던 고독한 ‘노신’을 시인이 떠올린 것이겠군.
- ⑤ ‘여기 하나의 군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는 시인이 ‘노신’의 삶의 태도를 내면화하여 의지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이겠군.

13.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화자가 ‘청둥오리떼’를 보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 ② [A]에서 화자는 새떼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목소리’는 ‘살얼음’과 같은 현실을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여기고 있다.
- ③ [B]에서 화자는 새떼들이 ‘고행’을 하는 것이 ‘바다와 눈보라’를 헤쳐 나가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④ [B]에서 화자는 ‘무거운’ 삶을 살아온 자신을 되돌아보고 ‘속된’ 집착을 자각하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 ⑤ [C]에서 화자는 ‘겨울새들의 행로’를 보며 자신도 새들처럼 ‘가난해져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다.

해설

④②①⑤②
⑤⑤②⑤④
③②②

[1~4] (인문) 석봉래, ‘논리와 심리’

삼단 논증의 추론 과정에서 일어나는 오류 현상에는 일정한 유형이 있는데, 이 점에 착안하여 오류의 원인을 인지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는 글이다. 분위기 이론, 심적 모형 이론, 환위, 믿음 편향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드러나는 인간의 인지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1. [출제의도] 논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분위기 이론, 심적 모형 이론, 환위, 믿음 편향의 순서로 인지 오류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 이론들을 소개하고 있다. 인간의 인지적 특성을 서술하면서 마지막 단락에서는 전통적 관점과 달리 인간이 논리적 사고 중심의 인지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인지 오류 현상에 대한 상반된 이론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절충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② 인지 오류 이론의 핵심 개념을 일부 정의하고 있으나 인지 능력의 발달 단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인지 오류 이론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를 글에서 찾을 수 없다. 또한 다양하게 분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⑤ 인지 오류 이론에 영향을 미친 다른 이론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

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을 뒷받침하는 심적 모형인 ㉡를 보면, 주어진 전제를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 즉 모든 사각형에 음영이 있다. 그리고 어떤 음영이 있는 도형은 뚜렷한 윤곽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각형도 뚜렷한 윤곽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사각형은 뚜렷한 윤곽이 있다.>가 반드시 도출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첫 번째 전제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심적 모형이다. ③ 첫 번째 전제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④, ⑤ 두 번째 전제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심적 모형이다.

3.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추론한다.

㉠은 주어진 전제들이 믿을 만하지 못하면 ‘그제야’ 논리적 규칙을 적용한다고 말하고 있다. ㉡는 논리적으로 복잡한 정도에 따라 믿음 편향이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음을 말한다. 즉 논리적으로 복잡한 정도는 믿음 편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과 ㉡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믿음 편향은 논리적 규칙 적용 이전에 일어난다.’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② ㉠과 ㉡를 통해 믿음 편향이 강할수록 개인의 합리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이끌어 낼 수 없다. ③ ㉠과 ㉡를 통해 믿음 편향이 논리적 규칙 적용에 능숙할수록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이끌어 낼 수 없다. ④ 전제들이 논리적으로 복잡할수록 믿음 편향 효과가 발휘된다는 것은 ㉠과 상충된다. ⑤ 전제들이 논리적으로 복잡할수록 논리적 규칙 적용이 수행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논리적 규칙 적용 이전에 이미 믿음 편향이 일어나므로 ㉠과 ㉡를 통해 이끌어 낼 수 없다.

4.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분위기 이론에 따르면 특칭은 전칭으로, 전칭은 특칭으로 바꾼다고 해도 바꾸기 전과 마찬가지로 전제에 특칭, 부정이 사용되어 ‘결론이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답하는 사람은 <보기>의 논증과 비슷한 비율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주어진 전제들을 환위하면 환위하기 전과 뜻이 달라진다. ② 심적 모형 이론에 따르면 모형을 모두 구성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삼단 논증에서 오류가 발생한다. <보기>에 제시된 삼단 논증은 결론이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볼 수 없다. ③ 분위기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나라도 특칭이면 특칭 결론을, 하나라도 부정문이면 부정 결론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④ 에번스는 사람들이 일단 결론이 자신의 믿음 체계와 정합적이어서 믿을 만하다고 평가하면 논리적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결론을 받아들인다고 보았다.

[5~10] (고전 소설) (가) 김일렬, ‘고전 소설에 나타난 기이성 연구’ / (나) 작자 미상, ‘금령전’ / (다) 작자 미상, ‘심청전’

(가) 김일렬, ‘고전 소설에 나타난 기이성 연구’

고전 소설 창작에 널리 이용되어 온 ‘기이성’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비현실성 등 기이성을 형성하는 다양한 요소와 함께 고전 소설의 역사적인 발전 단계에 따라 기이성이 구현되는 양상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17세기 소설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비현실성은 18세기에 이르러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비현실성을 환상계에 귀속시킴으로써 비현실성에 대한 설득력을 높여 간다. 한편 19세기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환상계의 질서에 귀속된 비현실성이 인물의 극단적 성격, 사건의 극적 전개 등과 함께 기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 작자 미상, ‘금령전’

이 작품은 전기 소설로 ‘금방울전’이라고도 한다. 남 주인공이 ‘금령’과 조력자의 도움으로 요귀를 퇴치하고, 요귀에게 잡혀 간 공주를 구한다는 설화적 요소가 짙은 작품이다. 인물이 고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초현실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비현실적 요소가 많이 나타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다) 작자미상, ‘심청전’

이 작품은 판소리계 소설로 눈먼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심청’의 지극한 효성을 잘 보여 준다. 현실계의 인물인 심청이 수궁계의 도움으로 천자와 인연을 맺고 이후 헤어졌던 아버지와 재회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현실계와 환상계의 이원적 구조가 잘 나타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5.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해한다.

(가)의 2문단에서 전기 소설은 현실의 논리 같은 것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으며 초현실적 존재의 활약을 극대화했다. 따라서 전기 소설에서 현실 세계의 논리가 사건 전개에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의 4문단에서 판소리계 소설은 민중적인 가치를 담아 발전했다고 하였다. ③ (가)의 3문단에서 18세기 적강형 영웅 소설에서는 비현실성과 현실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이원적 세계관이 잘 나타난다고 하였다. ④ (가)의 1문단에서 기이성은 새롭고 낯선 것에서 느껴지는 성질로서 당대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왔다고 했다. ⑤ (가)의 3문단에서 18세기에 이르면 합리적 사고와 사회의식이 성장하면서 초기 소설이 가지고 있던 비현실성의 요소가 점점 약해지게 되었다고 했다.

6. [출제의도] 외재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이국정취가 기이성 형성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심 소저’가 중국 천자의 배필이 된 것이 이국정취로 인한 인물의 성격 변화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① 금방울인 ‘금령’이 해룡에게 길을 인도해 주는 장면은 현실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초경험적이고 환상적인 일이다. ② 해룡이 초현실적 존재인 요귀를 무찌르고 위험에 처한 이들을 구하는 장면에는 비현실성의 요소가 잘 나타나 있다. ③ 환상계에 속한 용궁 시녀가 심 소저와 함께 꽃병 안에서 등장해 현실계의 존재들과 만나는 모습은 비현실적 요소가 잘 드러난 부분이다. ④ 아버지의 눈을 뜨도록 하기 위해 바다에 몸을 던진 심 소저는 지극한 효성을 가진 인물이며, 그가 수궁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은 비현실적 요소가 잘 드러난 부분이다.

7. [출제의도] 외재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이해한다.

㉠은 비현실성이 환상계의 질서에 귀속됨으로써 이것이 사건의 극적 전개에 중요한 장치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참고할 때, 환상계에 머물던 심 소저가 옥황상제의 명에 따라 현실계의 천자와 극적으로 인연을 맺게 되는 장면은 비현실적인 사건이 환상계의 질서에 의해 현실계에서 극적으로 전개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면을 환상계의 질서가 현실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 장면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뱃사람들이 심 소저의 혼을 불러 위로하는 장면에서 환상계와 현실계의 교감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를 환상계의 존재와 현실계의 존재가 서로 교감하는 계기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천자가 심 소저를 상제가 맺어 준 인연이라고 말하는 장면은 현실계의 질서 속에 환상계의 질서가 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심 소저가 여덟 선녀와 이별하며 이승과 저승의 길이 다르다고 말하는 장면은 환상계와 현실계의 개별적인 독립성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환상계와 현실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수궁

에 머물던 심 소저가 사해용왕의 도움으로 순식간에 인당수에 번듯 떠오르는 장면은 환상계와 현실계가 서로 연결된 세계임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이 동일한 세계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8. [출제의도]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한다.

[A]는 구름 속의 목소리가 해룡에게 금령을 구하라고 명령하는 장면으로, 해룡이 요귀가 있는 환상계로 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B]는 옥황상제가 사해용왕에게 심 소저를 인당수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하는 장면으로, 심 소저가 수궁에서 현실계로 복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오답풀이] ① [B]가 인물에게 집단적 요구에 저항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③ [A]가 인물에게 초인적인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은 아니다. ④ [A]가 인물에게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⑤ [A]가 인물에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9. [출제의도] 작품 간 비교를 통해 변이 양상을 파악한다.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모티브가 되는 설화로서 두 작품의 비교를 통해 설화의 변이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설화에서는 남주인공이 요귀에게 잡혀간 공주를 구하기 위해 요귀를 찾아가지만, (나)의 남주인공인 해룡은 요귀에게 잡혀간 금령을 구하기 위해 요귀를 찾아간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설화에서 남주인공이 찾아 간 요귀의 거처에는 공주들이 잡혀 있었다. 또한 (나)에서도 요귀의 거처에는 잡혀 온 공주 일행이 머물고 있었다. 따라서 설화와 (나) 모두 요귀의 거처에 공주가 있다는 설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설화에서는 남주인공을 배신하는 부하들로 인해 남주인공이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나)에서는 이러한 인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설화에서는 남주인공이 요귀가 있는 지하국에 진입하기 위해 바구니를 이용하지만, (나)에서는 남주인공이 바구니를 타고 요귀의 거처에 들어가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설화에서는 초현실적 존재인 산신령이 꿈에 나타나 남주인공을 요귀의 거처로 인도하고, (나)에서는 구름 속에서 신이한 목소리가 들려 해룡이 요귀의 거처로 가도록 이끌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 모두 남주인공이 요귀의 거처로 가도록 이끄는 초현실적 존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0.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㉔는 ‘용녀’가 꽃봉 밖의 상황을 살피다 인기척에 도로 꽃봉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이것은 낮선 세계로 오게 된 용녀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으로, 이 장면에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인물의 의도가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㉔는 해룡의 적대적 대상인 요귀가 갑자기 출현하는 장면으로, ‘벽력같은 소리’, ‘주홍 같은 입’과 같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인물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생동감 있게 보여 주고 있다. ② ㉔는 ‘홀연 천지가 명량하고 일월이 조요’해진 주변 상황과 비석에 새겨진 ‘남전산 봉래동’이라는 지명을 통해 새로 진입한 환상계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③ ㉔는 바람과 비에도 변함없이 유지되는 대상의 모습을 통해 환상계에서 온 꽃봉의 초월적 특징을 부각하고 있다. ⑤ ㉔는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위엄 있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인물의 태도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11~13] (현대시) (가) 김광균, ‘노신’ / (나) 복효근, ‘새에 대한 반성문’

(가) 김광균, ‘노신’

화자인 시인이 일상에 관한 문제에 고뇌하면서도 시

를 쓰는 행위를 통해 문학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신념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해방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적 현실과 당대 시단의 갈등 국면에서 자신의 예술적 방향성을 고민했던 시인의 고뇌가 담겨 있는 작품이다. 특히 이 시에는 시인이 닮고자 했던 중국 작가 ‘노신’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으며 시의 화자는 혁명의 혼란기에 쓸쓸하고 고독하게 예술적 성취를 이룬 ‘노신’의 삶을 떠올리며 동일시하고, 자신의 삶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나) 복효근, ‘새에 대한 반성문’

화자가 청둥오리떼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고 성찰로 나아가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먼 바다 건너에서 날아오기 위해 고행한 새들의 삶을 통해, 욕심과 집착으로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다. 아울러 부끄러움을 느낀 화자는 겨울새들의 행로를 보며 자신도 헛된 욕심을 털어내고 더욱 치열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11. [출제의도]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한다.

(가)에서는 ‘여기 하나의 상심한 사람이 있다.’와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와 같이 변주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고, (나)에서는 ‘더 추워야겠다’와 ‘한것 가난해져야겠다’와 같이 유사한 시구를 변주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유사한 시구가 반복되기는 하지만 역동적 측면을 부각하는 것은 아니며, (나)에서는 점층적 부분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② (가)에서는 의성어의 활용이 드러나지 않고, (나)에서는 ‘카랑카랑’을 통해 새들의 목소리를 표현하고 있다. ④ 반어적 표현은 (가)와 (나) 모두 찾기 어렵다. ⑤ 여정에 따른 공간 이동은 (가)와 (나)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12. [출제의도] 외재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보기>는 (가)의 작가인 김광균의 개인적 생애에 관련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시의 화자가 시를 쓰는 것에 대해 고뇌한 모습과, 중국 작가 ‘노신’을 떠올리며 자신의 삶의 의지를 다지게 된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밤눈이 내려 쌓이’는 것이 잠든 아내와 아이들의 베개 아래라는 것은, 가족을 돌보는 생활의 문제에 대한 시인으로서의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시를 믿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드러내며 잠을 못 이루는 사내의 모습은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고뇌했던 시인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③ 해방 이후 혼란과 갈등 속에서 시인이 느낀 피로감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④ (가)에서 화자가 권등불이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로 바뀌는 것은, 힘들고 고독한 상황에서 문학적 성취를 이룬 ‘노신’의 삶을 시인이 떠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시인은 ‘노신’의 삶과 자신의 삶을 동일시하며 의지를 다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13. [출제의도] 문맥을 통해 시어의 의미를 파악한다.

‘머언 먼 순은의 눈나라에서나 배웠음직한 몸짓’과 ‘카랑카랑 별빛 속에서 익혔음직한 목소리들을 풀어놓는’ 것은 ‘살얼음 깔려드는’ 힘든 현실에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새떼들의 모습과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③ 새떼들이 ‘고행’을 하는 것은 먼 바다를 건너기 위한 ‘비상’을 준비하는 치열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④ 화자는 스스로를 무거운 존재로 인식하며 ‘관절통’을 호사스러운 것으로, ‘그리움’을 속되고 얕은 것으로 인식하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